



내달 10일 목포서 여자축구 올스타전

WK리그 6개팀 중부·남부팀 나눠 42명 출전

여자축구 최초의 실업리그인 '대교는 높이 2009 WK리그' 올스타전이 오는 8월 10일 오후 8시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개최된다.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 오규상)은 27일 "지난 6일 완공한 목포 국제축구센터 건립을 기념해 목포시에서 여자축구 올스타전을 개최하게 됐다"라며 "리그에 참가하는 6개 실업팀을 중부와 남부 팀으로 나눠 감독들의 추천을 받은 총 4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중부팀은 현대제철, 서울시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으로 구성해 한문배(수원시시설관리공단)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다. 중부팀에는 대표팀 주전 골키퍼 김정미(현대제철)를 비롯해 득점 공룡선두(5골)인 김주희(현대제철)과 배

오그라드 하계유니버시아드 득점상을 받은 전가을(수원시시설관리공단) 등이 올스타 이름을 올렸다.

이에 맞서는 남부팀(대교·충남 일화·부산 상무)은 강재순 충남 일화 감독의 지휘 아래 대표팀 주전 미드필더 이장미(대교)와 스트라이커 한송이(충남 일화), 최선진(부산 상무), 브라질 출신 브레치나(대교) 등이 활약하게 된다.

오규상 회장은 "여자축구 사상 최초 실업리그인 WK리그가 올해 성공적으로 출범했고 이번 올스타전을 계기로 더 많은 팬이 함께 하는 리그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교는높이 2009 WK리그 올스타전 명단
◇중부팀(한문배 감독)

▲GK = 안서진(서울시청) 임성미(수원시시설관리공단) 김정미(현대제철) ▲DF = 장윤정 전제민 강선미 이영룡(이상 서울시청) 이계립(현대제철) 김진아(수원시시설관리공단) ▲MF = 박현희(수원시시설관리공단) 이세은 한진숙(이상 현대제철) 문슬아(서울시청) ▲FW = 성현아 김주희 김결실(이상 현대제철) 장세화(서울시청) 이은진 조소현 전가을 김유진(이상 수원시시설관리공단)

◇남부팀(강재순 감독)
▲GK = 전민경(대교) 위성희(충남일화) 김주옥(부산상무) ▲DF = 최현수 전은애(이상 충남일화) 홍경숙 류지은 김숙경(이상 대교) 이예은 신귀영(이상 부산상무) ▲MF = 조아라 최수진 고태화(이상 충남일화) 이장미 김희영(이상 대교) 반영경(부산상무) ▲FW = 브레치나(대교) 최선진 유영아 한성혜(이상 부산상무) 한송이(충남일화) /목포=임영춘기자 lyc@



성남 일화의 몰리나(가운데)와 한동원(오른쪽)이 27일(한국시간) 스페인 세비아 피스후안경장에서 열린 2009 피스컵 안달루시아 세비아 FC와의 경기에서 상대 디디에르 조코라와 치열한 볼다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첨단고 류지훈 金

우수고교볼링 개인전

청소년국가대표 류지훈(첨단고)이 올해 고등부 볼링 2관왕에 올랐다.

류지훈은 지난 26일 열린 2009 KBS 전국 우수고교볼링대회 남고부 개인전에서 1천 332점을 기록, 황동준(경기덕성고·1천330점)·손석휘(경기경민정보고·1천287점)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류지훈은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우승에 이어 전국대회 2관왕의 영예도 안았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상일중 김정원 사격 銅

상일중 김정원이 제3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사격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정원은 27일 충북 청원에서 열린 대회 여중부 공기소총경기에서 393점을 쏘, 이나영(경남반송여중·398점)·김수진(서울청량중·395점)에 이어 아쉽게 3위를 기록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김민석 만리장성 넘었다

아시아 J탁구선수권 단식 우승

남자탁구 기대주 김민석(18·천안 중앙고)이 2009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만리장성을 허물고 주니어 단식 경상에 올랐다.

'신데렐라' 양하은(15·군포 흥진고)도 여자 카데트 우승컵을 차지하며 세계랭킹 1위의 실력을 뽐냈다.

김민석은 26일 밤 인도 자이푸르에서 열린 대회 남자 주니어(18세 이하) 단식 결승에서 중국의 안안에게 먼저 3세트를 내주고도 내리 4세트를 가져와 4-3(5-11 12-14 8-11 11-5 11-1 17-15 15-13)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해 싱가포르 대회에서 이상수(삼성생명)가 우승한 데 이어 2년 연속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 남자부 단식을 제패했다. 특히 김민석은 단체전 결승에서 3단식을 내주며 중국에 우승컵을 넘겨줬던 아쉬움을 털어냈다.

/연합뉴스

완도서 전국 비치발리볼대회

유명 해적 휴양지인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다음 달 8~9일 전국 비치발리볼 대회가 열린다.

27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시원한 파도와 뜨거운 태양, 그리고 금빛 모래가 아름다운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완도군 배구연합회의 주관으로 전국 비

치발리볼 동호인 30개팀 1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2007년부터 2년 연속 국토해양부 전국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될 만큼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수질과 모래가 깨끗해 작년에만 125만명이 다녀갔다.

내달 8~9일 명사십리해수욕장

동호인 30개팀 1,500여명 참가

또 신지도에서는 지난 4월 '제1회 세계 슬로우 걷기 축제'에 이어 최근에는 11개국 200여 명이 참가한 '2009 국제태권도 아카데미 참가선수단 하계수련회'가 열리는 등 국제적인 행사가 자주 개최된다.

/완도=정문조기자 ejchung@

조선대 김성호 3관왕 '번쩍'

전국대학역도선수권 62kg급

대학부 역사(力士) 김성호(조선대)가 '금빛바벨'을 들어올리며 3관왕에 등극했다.

김성호는 27일 강원도 양구 용화체육관에서 열린 2009 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 역도 경기 및 제9회 전국대학생역도선수권대회 남대부 62kg급 인상·용상·합체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김성호는 지난 4월 춘계대회(56kg급)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3관왕 행진을 펼치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김성호는 인상에서 98kg을

기록, 남우근(충북대·97kg)·변현섭(경남대·90kg)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용상에서도 130kg을 들어올려 2위 변현섭(102kg)과는 무려 28kg차이로 가볍게 우승했다.

김성호는 합계에서도 228kg을 기록, 남우근(197kg)·변현섭(192kg)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라,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거는 영예를 안았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28일(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경동고 : 마산고)(12 : 50·SBS스포츠)

▲2009 국제배구대회(현대건설 : 타이베브)(13 : 50·KBS n스포츠) <저장 : 삼성화재>(15 : 50·KBS n스포츠)

▲2009 프로야구(SK : 히어로즈)(18 : 10·KBS n스포츠) <두산 : 한화>(18 : 15·MBC ESPN) <삼성 : LG>(18 : 15·Xports) <KIA : 롯데>(21 : 00·SBS스포츠)

29일(수)

▲200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자유형 200m 결승(00 : 45·KBS2·KBS n스포츠)

▲피스컵 안달루시아(유벤투스 : 성남 일화)(03 : 20·SBS스포츠) <레알 마드리드 : 리가 데 키토>(05 : 30·SBS스포츠)

정성룡 선방...성남, 세비야와 무승부

피스컵 A조 예선, 내일 유벤투스전 승리땀 4강행

K-리그 성남 일화가 국제클럽축구대항전 '2009 피스컵 안달루시아' 첫 경기에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세비아FC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다.

성남은 27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세비아 라몬 산체스 피스후안에서 열린 세비아와 A조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득점 없이 0-0으로 비겼다.

각 조 3팀씩 풀리그 방식으로 조별리그를 치르는 이번 대회에서 성남은 1무로 4강 진출 가능성을 남긴 반면 지난 25일 이탈리아

세리에A 유벤투스와 개막전에서 1-2로 패했던 세비아는 1무1패가 됐다.

성남은 29일 헤레즈에서 열린 유벤투스와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하면 1승1무로 4강행 티켓을 따낼 수 있다. K-리그 일정으로 지난 25일 스페인에 입성한 성남은 시차 적응이 덜 되고 현지 적응 훈련이 부족한 탓에 수비 위주의 경기로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성남 주전 수문장 정성룡도 세비아를 상대로 수차례 선방을 펼치면서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는 철벽 방어를 자랑했다. /연합뉴스

동신여고 임수민 3관왕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

동신고 이정민 남고부 金

주니어국가대표 임수민(동신여고)이 제 47회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임수민은 27일 경북 문경시민정구장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개인단식 결승에서 조혜진(상주여상)을 3-0으로 꺾고 우승했다.

이로써 임수민은 지난 24일 단체전 우승에 이어 26일 동료 최미란과 호흡을 맞춘 개인복식 결승에서 채예리·문혜진(순천여고) 조를 4-1로 제압해 대회 3관왕의 영예를 안

았다. 박은지(동신여고)는 개인단식 준결승에서 조혜진에게 2-3으로 져 아쉽게 동메달에 그쳤다.

남고부 단식결승에선 이정민(동신고)이 전근영(홍성고)을 3-0으로 가볍게 누르고 우승했다.

한편 혼합복식에선 우형준(순천시청)-김혜인(전남도청) 조가 양진환(서울시체육회)-김예경(농협중앙회) 조에 2-4로 패해 은메달에 머물렀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 real estate or construction company, featuring a table with detail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무등빌딩임대' (Mudeung Building Rental), listing features like location, facilities,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공장금매' (Factory Sale), listing properties for sale in Gwangju with prices and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다이아몬드링' (Diamond Ring), showcasing various ring designs and prices.